

7 광주일보
제17449호 2006년 5월 17일 수요일

“영화 다빈치 코드는 허구일 뿐”

법원, 상영금지 가져분 기각

“루브르 박물관 대화랑에서 발견된 시체~ 천재화가 다빈치의 작품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실..”



영화 ‘다빈치 코드’ (The Da Vinci Code·사진)가 당초 예정대로 18일 국내에 개봉된다.

댄 브라운의 미스터리 소설을 토 한 하워드 감독이 영화로 만든 이 작품은 톰 행크스가 특별강연을 위해 파리에 체류 중이던 하버드대 기호학자 로버트 랭던 역을 맡고, 오드리 토투·이안 맥켈렌·폴 베타니·장 르노 등의 배우가 출연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한국 기독교총연합회와 영화 ‘다빈치 코드’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며 한국배급사인 ㈜소니픽처스릴리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져분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에 기독교 교리와 예수 생애에 관한 신념·지식과 상이한 사실로 인해 신중인의 명예감정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소명되나, 원작 소설과 영화는 허구임이 명백하고 실화를 극화한 것임을 표방하고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신중인들의 사회적 명예에 변경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의 평균인은 예수의 생애나 기독교에 대해 구체적 관념 및 신념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그 관념이 영화를 보는 과정에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작소설이 국내에서 260만부 이상 판매되고 소개돼 영화 상영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5·18 기념식 훈련중 사망 경찰관 국립묘지 안장

지난 15일 오후 5시에 광주시 북구 문흥동 도동고개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5·18 기념식 모의훈련(FTX)을 하던 고흥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이경수(41)경사가 각화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망월동 방향으로 향하던 시내버스 광주 77바 25××호(운전자 박모·49)에 치어 숨졌다.

이 경사는 이날 사고 장소에서 수신호로 교통 통제를 하다가 같은 변을 당했다.

순진 고(故) 이경수 경사의 영결식은 17일 오전 10시 학동급호장례식장에서 고흥경찰서장(葬)으로 치러지며,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경찰청은 이 경사에게 육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이 경사 가족을 돕기 위해 모금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끝나지 않은 80년 5·18의 상흔..

“총탄 한 발 아직도 가슴에 남아”

本報 주선으로 만나 ‘그 날’ 회상

80년 5·18의 ‘상흔’(傷痕)~계엄군이 쏜 다섯 발의 총알 중 한 발은 아직도 남아있었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은 문득을 만나들었던 환자와 그를 수술하면서 밤을 샜던 의사가 25년 만에 다시 만난 날. 그들은 아직도 몸속에 남아있는 총탄에서 끝나지 않은 광주 비극을 보았다.

지난 15일 광주시 동구 소재 동 ‘서울연합의원’ 원장실. 5·18 당시 기독교병원 외과 레지던트였던 김익성(53) 원장이 환자였던 국민호(51·광주시 서구 풍암동)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가워했다.

국씨가 “절 기억하시겠어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김 원장은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김 원장은 “슬리퍼가 붉은 색으로 변할 정도로 많은 피를 쏟았던 환자여서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계엄군의 첫 발포가 있던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당시 막 군대를 제대한 국씨는 시위대가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사별한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수술을 받기 위해 금남로 일대를 뛰어다녔다. 이때 ‘탕~탕~’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가슴을 꿰뚫었다.

국씨는 동료에 의해 기독교병원으로 옮겨졌고, 이곳에서 김 원장을 만났다. 다른 의사들은 다섯 발이나 맞은 국씨가 가망이 없다고 했다. 하지

만 김 원장은 “일단 총알이라도 빠져”며 그를 수술실로 옮겼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 비장(脾臟)을 잘라냈고, 창자도 2~3m나 절개했다. 하지만 국씨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것”이라는 주변의 예상을 깨고, 회복실에서 깨어났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놀랐다.

국씨는 이후 KT&G에 입사, 새로운 삶을 누렸다. 김 원장은 1983년 경남 통영으로 가 ‘총무종합병원’을 열었다. 5·18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쓰기 위해 수집했던 자료들을 계엄군에 몽땅 빼앗기면서 고향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1995년 외국으로 떠났다가 2004년 광주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국씨와 김 원장은 지난 15일 25년 만에 재회했다. 김 원장이 국씨를 기억하고 본보에 도움을 요청, 수소문 끝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들은



80년 5월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총을 맞아 사경을 헤맨 국민호(왼쪽)씨와 국씨를 수술한 김익성 원장이 본보의 주선으로 25년 만에 재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정기자 mjna@kwangju.co.kr

‘작통’ 월드컵 응원복 적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붉은 악마’의 슬로건을 무단사용해 월드컵 응원복을 제조·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김모(45)씨와 양모(여·49)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 초부터 서울 중구 광화동 모 빌딩에 공장을 차려 놓고 ‘붉은악마’의 슬로건인 ‘REDS, GO

TOGETHER’의 사용권을 갖고 있는 ㈜베이지하우스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응원복 2천500여장을 제작한 혐의다.

양씨 등 6명은 김씨로부터 ‘작통’ 응원복을 사들인 뒤 동대문 상가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품 가격(1만9천900원)의 절반값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붉은악마’ 슬로건 도용

절반값에 유통 7명 입건

경찰은 김씨가 ‘작통’ 응원복을 제작·판매해 700여만원을 챙겼으며 월드컵까지 총 10만장의 응원복을 제작·판매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2002년 월드컵 당시엔 붉은악마가 ‘BE THE REDS’라는 당시 슬로건을 상표권 등록하지 않았으나 2006년 월드컵 슬로건은 상표권이 등록돼 이를 무

단 사용하면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월드컵 응원복의 총 매출액 중 붉은악마와 대한축구협회가 각 6%씩 갖게 되는데 이 금액은 전액 축구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월드컵 응원복 정품은 ㈜베이지하우스가 중국에서 만들어 우리나라에 들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응원복은 모두 ‘작통’이며 정품 좌측 팔 부분에 ‘대한축구협회 엠블럼’과 ‘대한축구협회, 붉은악마 슬로건 공식상품화권자: 플라미’라고 표시된 라벨이 부착된다. /*연합뉴스



연예자 동리미
대주 피오레
1,300여 세지 중 35명 353명
문의 (062)366-4220

연예인들이 동료 연예인 성매매 알선

○~연예인 3명이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동료 연예인 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허가도 없이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연예인 L·H·J씨를 불구속 입건·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2월부터 조직폭력배 ‘신촌이대식구파’ 고문 정모(43)씨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무허가로 A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남녀 종업원 30여명을 고용, 신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춤을 추도록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퇴폐 영업을 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L·H·J씨는 A유흥업소에 나이트클럽·룸살롱·가라오케·호스타바 등 각종 영업 시설을 갖춰놓고 자신이 끌어온 손님인 올린 매상 중 40~50%를 정씨와 나눠 가졌으며, 연예인 10여명이 단골 손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100만평의 바다와 10만평의 공원을 소유하십시오!

5월말 무질하우스 오픈예정

53-43-38A-38B동 1108호 576호까지 문의: 061-282-0400